

이름:		날짜:	
-----	--	-----	--

YM고전읽기 논술 능력고사(초등3~4학년)

[문제] 아래 이야기에서 백리더의 ‘고민’이 무엇인지 해석하고, 백리더가 두 선택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있게 서술해보자. (600자 내외)

YM초등학교 학생들은 동네에서 축구를 잘 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서울의 다른 초등학교들과 학교 대항전 축구 시합에도 나갔습니다. 항상 우승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팀이었죠. YM초등학교 학생들은 자기네 학교 축구팀이 서울 최강의 축구팀이라며 자랑스러워했고, 이때만큼은 한마음으로 학교 축구팀을 응원했습니다.

YM초등학교 4학년 2반 아이들도 올 여름 초등학교 축구 대회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팀 내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활약하는 강하다 선수가 4학년 2반 이어서 반 아이들의 응원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강하다는 작년에 처음 축구팀이 되었는데, 여러 경기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어 에이스로 성장할 것이라는 칭찬이 많았습니다. 4학년 2반 반장 백리더 학생에게도 이번 대회는 특별했습니다. 강하다와 백리더는 1학년 때부터 둘도 없는 단짝이었거든요. 백리더는 누구보다 열심히 경기에 나가 친구 강하단을 응원할 생각에 벌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같은 축구팀이었던 이간간 학생은 강하다와 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둘 중 하나가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바로 큰 소리로 지적하기 일쑤였고,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첫 경기 날짜가 다가오면서 더 예민해진 강하다가 이간간의 비아냥에 그만 이성을 잃고 달려들고 말았습니다. 강하다는 이간간과 뒤엉켜 싸웠고, 주변 아이들이 급하게 말려봤지만 결국 두 학생은 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강하다가 먼저 이간간에게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는 강하다에게 이번 축구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를 내립니다. 강하다는 너무 억울했지만 평소 이간간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도 있어 그 징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리더도 친구의 소식을 듣고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며칠 뒤, YM초등학교에서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징계 때문에 YM초등학교 축구팀으로 경기에 나갈 수 없게 된 강하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는 소문이있어요! 게다가 전학 간 학교가 이번 축구 대회와 라이벌 GP초등학교였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결국 징계에 불만을 품은 강하다가 라이벌인 GP초등학교로 전학을 간 것도 모자라 그 학교 축구팀으로 대회에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자마자 대부분의 YM초등학교 학생들은 강하다가 전학 간 것은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YM초등학교의 라이벌인 GP초등학교의 축구팀에 들어갈 수 있냐고 화를 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리더는 누구보다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둘도 없는 단짝 강하다를 응원하자니, YM초등학교를 배신하는 것만 같았고, 그렇다고 YM초등학교 축구팀을 응원하자니, 친구 강하다와의 우정을 배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YM초등학교를 응원하면 강하다의 억울함을 모른 채하는 것만 같았고, 반대로 강하다를 응원하면서 반 아이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경기 날짜가 다가올수록 백리더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끝)